

경남신문 > 스포츠

글자크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도체육회 권고시한 코앞인데... 종목단체 통합작업 '지지부진'

9월 말까지 모든 종목 통합 원칙

엘리트·생활체육 '이해관계' 상충

기사입력 : 2016-06-16 07:00:00



Like

{ 0 }



트윗

{ 0 }



G+

{ 0 }

경남 도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통합 경상남도체육회가 지난 2월 말 출범함에 따라 도내 종목별 단체들도 통합을 진행 중이다. 도체육회는 6월 말까지 도 종목단체 통합을 1차적으로 완료하고,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모든 종목 단체의 통합을 마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다. 도체육회가 제시한 권고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많은 종목이 '기득권 싸움'으로 현재까지도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합 절차= 도체육회가 종목단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다. 체육단체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되면서 전문체육 저변 약화, 은퇴선수 일자리 제공한계, 정책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단체별 통합'이다. 통합은 엘리트 가맹경기단체와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양 단체간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통합추진위원회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추진위에서는 통합 단체의 정관과 규정, 창립총회 대의원 구성, 통합단체 회장 선출 방법 및 회장 선거관리규정안, 임원 구성안 의결 등 협의를 통해 양 단체를 통합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 종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통합이 순조롭지 못하다. 단적인 예로 각 단체별로 2명의 회장이 담당 1명으로 축소된다는 점에서부터 양 단체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합 현황= 경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도내에는 51개의 엘리트 종목과 생활체육종목 47개가 편성돼 있다. 도 체육회는 이 가운데 통합 대상 종목 31개와 비통합 대상 36개 종목으로 나눠 총 67개의 종목 단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중 근대5종, 럭비, 빙상, 축구, 합기도 등 종목이 엘리트체육 또는 생활체육 중 한 부문에 단일단체로 존재해 별도의 통합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비통합대상 종목의 경우 명칭과 조직개편 등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돼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양 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통합 대상 종목 31개다. 31개 종목 가운데 15일 현재까지 창립총회개최 등으로 통합이 완료된 종목은 궁도, 산악, 씨름, 축구 등 4개 종목이다. 내주 중으로 3~4개의 종목이 추가로 통합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합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갈 길 먼 종목별 통합= 종목 통합이 시간이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임원 선출과 이사·대의원 구성에 따라 종목의 운영방법과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양 단체는 기존 자기단체의 이익과 나아가 본인의 처우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체육회는 기한 내 통합하지 않는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대의원 자격 상실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통합을 독려하고 절차 상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합 관련 2차 설명회도 갖는다.

그러나 통합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생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곧 국격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최근엔 대형 국제대회 개최를 예산 낭비로 보는 시각이 팽배할 정도로 국민 인식은 달라졌다. 생활체육 역시 다양한 종목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엘리트 선수가 길러지는 질적 향상은 없었다.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운동을 즐기는 풀뿌리체육의 울타리 내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해 육성하는 등 폭넓은 체육환경 조성으로 스포츠를 생활화하면서 그 속에서 우수 선수도 선발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만큼 '체육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연진 기자

- 1 회삿돈 180억원 뺏춘된 대우조선 전 직...
- 2 6살 아이,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 3 신공항 가덕 후보지 곳곳에 안전 위험요...
- 4 마산서원곡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 잦아...
- 5 창원시 인구 1만명 미만 동 통-폐합
- 6 [워하코] 진해해양공원-우도 '한번에 즐...
- 7 회삿돈 횡령 대우조선 전 직원 내연녀와...
- 8 [내일청년] 마술스튜디오 신용은 대표
- 9 NC 12연승... 갈 때까지 가보자!
- 10 NC 9회 대역전 드라마... '11연승' 행진

제6회 2016 인권사랑 장원사람
순수나들이장 경기대회의 신청서
2016년 6월 25일(토) 09:00 창원대학교 운동장

공룡나라 신민족

제18회 경남신문회장상
아마추어 골프대회
대진표 보기

Vineage
리니지 LFC 공식개막
지금 접속하라
접속하기 >

경남투어
210-6066~7
동남아/중국/일본/유럽/미주
실속상품부터 알찬패키지까지!
항공 호텔 해외여행 렌터카 골프

데스크가 뽑은 뉴스
[경제] 천연과줄 함유 저도주 '하이트 망고링크'...
[사회] 옛 88고속도로 확장 개통 후 6개월, 사고...
[문화] 창원 동네방네 합창 메아리

라이프
[워하코] 진해해양공원-우도 '한번에 즐...
창원시청(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서 출발해 자동차로

이래서 다들 사는구나
어딜가도 이 가격에 이런 신발 찾기 힘들겁니다
10주년 기념 특가 39,800원
ANGIO

영상 | 포토